

# 책을 '즐기는' 문화

李光周

전주대 사학과 교수

“冊만은 ‘책’보다 ‘冊’으로 쓰고 싶다. ‘책’보다 ‘冊’이 더 아름답고 더 冊답다. 冊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冊이다.”

이 글은 李泰俊의 「冊」이라는 수필에 담긴, 폭 넓은 교양을 지녔던 문인 작가의 애서가다운 참 모습을 엿보게 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그는 북으로 간 뒤 얼마나 책을 자유로이 읽고 어루만지는 淸閑을 즐길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또 얼마나 독서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책이 범람하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책들. 당연히 옥석이 뒤섞이게 마련이며 양서도 많고 악서도 적지 않다.

책을 찾아 고서점만을 헤매었던 지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실로 백화난만. 출판 융성의 오늘날을 우리들은 구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독서문화는 어떠한가.

대학교서관의 열람실은 언제나 아침일찍부터 만원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대하는 학생들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본이 아닌, 책을 손에 들고 있다. 창작집, 시집,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서, 에세이집 그리고 각종 번역서 등. 한 학생을 붙잡고,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하고 물으니 프로이트를 보고 있다는 대답이다. 그런대로 학생들은 다방면에 걸쳐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지적 관심이나 독서욕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적의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생이 도서관을 메운다고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은 취업에 대비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다. 그들 중에는 강의에도 나오지 않고 종일을 도서관에서 지내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단순한 지식의 수용만이 아닌 교양으로의 독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학생들은 대개가 1, 2학년 학생인 것이다.

어쩌다 서점에 들러 보면, 그 붐비는 손님 대부분이 학생층임을 발견한다. 몇시간 달리는 기차속에서도 신문이나 주간지 아닌, 책을 읽는 여객의 모습이란,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 커피숍 같은 데서도 책을 보고 있는 장년층의 외국인의 모습은 눈에 띠어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별로 본적이 없다. 외국과는 달리 문고판이나 신서판 출판이 아직도 제대로 햇빛을 못보고 있는 배경이 짐작된다. 세계에서 으뜸이 간다고 하는 우리의 고학력 사회에서 학창을 떠나면 책을 멀리하는 우리의 이 현실.

시험이나 직업에 관련된 일종의 목적의식에서 해방되어 책을 즐기고 그것을 삶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에는 학교 교육의 왜곡된 풍토도 적지아니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문자를 배우면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 동화집, 동물책, 위인전 등이 펼쳐 주는 책의 세계에 매료되고 어린 꿈을 키운다. 그러나 책에 열중하는 동심은 중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타의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 대학입시를 위한 가혹한 시기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적 욕구와 상상력이 훌훌 날개를 펼칠 시기에, 책을 빼앗기고, 그리고 국어나 역사수업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적 상상력이나 거대한 역사적 세계의 이미지를 생도들의 가슴에 심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학교교육 프랑스 리세의 생도들은 몇십권의 소설을 읽어야 졸업이 되고 영국의 드라마-스쿨과 퍼블릭-스쿨에서는 2년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몇편을 철저히 지도받으며 읽는다고 한다.

입시 지옥에서 해방되어 독서의 기쁨을 맛볼만 하면 다시 취업의 준비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책과 책이 지향하는 세계와는 거리가 먼 현실주의자들의 사회 상황이다. 독서라는 푸르고 풍요한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는 교육체계와 사회현실. 날로 삭막해지는 오늘의 우리 모습은 이러한 풍토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뉴스	2	출판학회 주최 국제출판학술대회·외
표지	4	「한국의 종」 퍼낸 엄영하교수
이달의 인물	5	조선조 시조문학의 최고봉 고산 윤선도
초점	6	출판계 인력수급 어떻게 이뤄지나
서평	8	이원식 「조선통신사」—하우봉 양태진 「한국영토사연구」—양기석 9 김광식 「인간과학과 신학」—박창호 포터 「경쟁우위」—이재유 10 문코 「라틴아메리카정치경제학」—이성형 유순하 「고궁」—한기
학대서평	11	김문환 「인식과 초월」 「연극평론의 기초」—한상철
출판시론	12	퇴폐문화 배설문화 청년문화—권영빈
문학시론	13	현실부적응자가 찾는 삶의 출구—하응백
쟁점	14	문학상 둘러싼 잡음 왜 끊이지 않나—이권우
출판화제	16	책으로 살펴본 한국의 학생운동사 17 아프리카 문학의 한국적 수용현황 18 기업의 출판지원 점차 다양해진다
화제의 책	19	교과용도서 역사적 변천 다룬 「한국의 교과서」
이 책 그 사람	20	「19홀의 세미나」 낸 최영정씨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 낸 조정형씨 21 「알기쉬운 반야심경」 낸 법륜스님 「한국인의 조형의식」 낸 김영기교수
특별기고	22	중국의 조선족 출판 현황과 과제—김정호
화제의 행사	24	「화사집」 50주년 기념 시제
화제의 인물	25	한국문학의 佛譯 소개 애쓰는 최현무교수
현지취재	26	유럽출판물유통시장 현장연수 참가기—손수호
해외출판	28	다언어사회 스위스의 출판현황·외—이희재
세계의 책	30	불합리를 받아들이는 일의 고통·외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 / 김홍진

## 편집자의 말

반평생에 걸친 한국의 전통종 연구성과를 최근 한권의 책에 집대성한 엄영하교수를 표지인물로 내세웠다. 학자로선 정체기에 빠져들기 십상인 70대의 나이에 「한국의 종」 같은 목적인 저서를 상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이 책은 '노년'보다는 '역작'이어서 더욱 소중한 '노년의 역작'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번호에는 취업시근에 즈음해 출판계 인력수급현황을 점검한 기사를 마련하는 한편, 80년대 이후 급증한 각종 문학상 제도의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글들을 준비했다.